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연중 제26주일 2019년9월29일(제1910호)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성당
Sacramento Korean Catholic Church

정혜엘리사벳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송돈희.요 셉 916-201-9859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아모스예언서 6:1,4-7	제2독서	티모테오1서 6:11-16	복음	루카 16:19-31

◉말씀 < 내 안의 부자와 라자로>

오늘 복음은 이름이 없는 어떤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부자는 죽어서 저승에 갔고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의 문간에서 종기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바랐던 라자로는 아브라함 곁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의 상처들, 사랑을 그토록 갈구 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슬픔,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분노, 상실의 아픔들, 실패에 대한 좌절감, 죄책감과 벌에 대한 두려움,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용서받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미래와 성취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 혼자 버려진 외로움 등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이 모습들이 가난한 라자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 자신 조차도 끌어 안을 수 없었던 이 모습 말입니다.

한편, 라자로는 부자의 또 다른 면이 아닐까요?
물질적으로는 부요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무시하고 외면하며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불타는 저승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 곁에서 위로받고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소화해 내기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친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치유, 참 평화가 들어오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이 가능해 집니다. 가난한 라자로가 안겼던 아브라함의 품은 곧 하느님 아버지의 품이요, 예수님의 품이요, 성령의 품입니다.
주님사랑의 품 안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소홀히 해왔던 자신을 끌어안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이웃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부자는 더 이상 속이 텅 빈 삶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자로 역시도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로소 참 행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이고, 이 사람들이야 말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 자	전 례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1일(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060.00 $ 1,064.00
10월2일(수)	수호천사 기념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430.00 $ 215,00
10월3일(목)	연중 제26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115.00 $ 16.00
10월4일(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주일학교	$ 400.00 $ 0.00
10월5일(토)	연중 제26주간 토요일	오전10시30분 오후 5시	합 계	$ 4,300.00
10월6일(일)	연중 제27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1명 성인:179명
교무금 봉헌자	박종윤(8-10월)김팔봉(8-9월)국부자(7-9월)민명규(1-3월)이원건(7월)권영일.송민자.김병길.이수동.정영규.김은영.김에릭.박병수.황호민.이경희.지영욱(9월)윤재경(11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자칫 우리도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 프란치스코교황 지난주 수요 일반접견시 교리교육중 발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로막는 유다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세상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열두 사도들은 모든 사람을 일깨우려는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로마 1,5 참조)실제 그들은 오순절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게 한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그들이 '우리와 성령'(사도 5,32) 혹은 '성령과 우리'(사도 15,28)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들이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길 것이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을 위해 많은 싸움을 이겨 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몇몇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계획은 처음엔 호응을 얻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어 위에서 오는 모든 것들과 하느님의 '서명'을 지니고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계획들은 항상 실패로 끝나며, 우리들처럼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힘만이 지속적입니다.

많은 죄와 스캔들과 나쁜 일들이 있었던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 역사와 교회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느님께서 교회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몇몇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들은 처음엔 호응을 얻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 합니다. 따라서 그는 나자렛 사람 예수의 추종자들이 사기꾼을 믿었다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지만 만일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들과 싸움을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도 5,39)**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사건을 볼 수 있게 하고, 복음을 아는 기준을 제시하는 평온하고 현명한 말입니다.

최고회의의 구성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죽이려던 계획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식별하는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길 청합시다. 우리 시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 모습 안에서 걸어가시는 하느님의 표징을 통해 구원역사의 통일성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시간과 인간들의 얼굴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메신저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따
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허용희.루시아의 영혼	이나숙.데레사	생	유정임.가브리엘라의 영육간 건강	아빌라회
			생	김은영.프란체스카의 영육간 건강	정의의모후Pr.
			생	성명진.다미아노의 영육간 건강	정의의모후Pr.

간장종지

◉하늘 이야기◉

바람으로 말하고 천둥으로 가르치고
번개로 다스려도 못다 한 하늘 이야기
사랑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fax

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 라 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 · 융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융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pm
SACRAMENTO . DUBLIN .LA K-TOWN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민원기.시몬
양문숙.마리아 (3구역)

박상채
박덕실.글라라 (5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묵주기도 안내
일시;매일미사 30분전(묵주기도 성월)
기도담당: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2.모임안내
구역장회의:10월6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3.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10월4일(금)오전9시30분.신부님
박성진.율리아 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4.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10월5일(토)오전10시30분.성당
미사후 안나회.요셉회가 있습니다..

5.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후원 위한)
일시:10월13일(일)오후1시30분(Shotgun)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
도네이션:김용문(Shoe Bag.Tee)봉창의(Putter$200
이종만(트로피$400)엄유경(웨지)송돈희(RangeFinder
최응철(물비누.볼마커)이재덕(RangeFinder)이은희
(골프Case)사무라이(상품권$100)김상범($100)
이서향($100)진엘리사($100)익명($100) 감사해요

6.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일시:10월12일(토)오전8시-오후1시.성당
문의:김규철.레오(952-836-7117)
약품구매/행사경비마련위한 도네이션 부탁해요
도네이션:전비아(혈당측정기외)익명($100)
이재덕($200)지정숙($100)익명($300)
St.Mary Cemetary & Funeral Center($200)
감사해요.

7.어린이(학생) 미사시간 변경
매주 일 오전9시→매주 토 오후5시(영어미사)
9월 28일(토)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오전9시 미사는 그대로 있으며
토요특전미사는 오후5시로 변경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래요.

8.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 조감도
열람 및 개인별 묘소위치 신청안내
일시:9월29일(일)교중미사후 친교실
개인별 묘소위치가 중복될때는 신청일자순으로
결정되며 장례준비신청도 함께 받습니다.
문의:고원석.바오로(916-813-4440)

9.장례미사(허용희.루시아) 안내
일시:9월30일(일)오전10시.성당
미사전 연도 및 문상예절 있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0.감사합니다(도네이션)
시설보수(옥상방수):김초지($200)

<주일학교 소식>

주일학교 가족캠핑 안내
일시:10월19일(토)오후3시-20일(일)오전10시
등록문의:허호영.헨리
주일학교 가족성가대 모집
대상:주일학교학생,학부모,청년
문의:김형일.안드레아 주일학교장
◉식사봉사(이번주);6구역 보조:김초지
식사봉사(다음주);2구역 보조:신부님.국마리아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화답송

전례봉사	연중26주일(9월29일)	연중27주일(10월6일)	연중28주일(10월13일)	연중29주일(10월20일)
해 설	최금주.요안나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정미정.루시아
제1독서	최범진.아브라함	양경민.안드레아	이순자.요안나	안병훈.스테파노
제2독서	박명혜.엘리사벳	양방림.베로니카	안강순.안젤라	안혜숙.세실리아
복 사	김규철.최준우	최진호.이상은	최준우.김규철	장현철.윤여훈
봉헌/기도/청소	5-6구역	7-8구역	7-8구역	7-8구역
헌금위원	임상일.박병수.안혜숙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